

忠臣戀主之詞의 理解와 史的 展開

박인희*

<차 례>

1. 서론
2. <정과정곡>과 충신연주지사의 개념
3. 충신연주지사의 확대
4. 충신연주지사의 사적 전개
5. 결론

<국문초록>

고전시가 중에는 충신연주지사라 불리는 작품들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충신연주지사의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본고는 『조선왕조실록』에 충신연주지사라 언급된 <정과정곡>을 중심으로 충신연주지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충신연주지사라 불리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충신연주지사의 작가는 충신으로 불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다른 인물이나 세력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으로부터 떨어진 상황 속에서 작품이 지어져야 한다. 셋째 왕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전제된 내용이어야 한다.

아울러 둘째 조건으로 인해 충신연주지사를 유배 중에 지어진 작품으로만 볼 필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셋째 조건으로 인해 충신연주지사에서 왕을 원망하는 내용은 문학적 관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신연주지사를 이렇게 이해할 때, 신라 때 지어진 <물계자가>, <실해

* 국민대학교

가>, <원가>와 조선시대 윤선도의 <견회요>도 충신연주지사로 볼 수 있음을 보았다.

본고를 통해 충신연주지사의 개념과 충신연주지사로서 고전시가가 어떤 성격을 갖는 작품인지 좀 더 구체화되었으리라 본다. 또한 이 논의를 통해 충신연주지사라는 표현을 몇몇 작품, 특정 장르에만 사용할 필요가 없음도 드러났다고 본다.

핵심어 : 충신연주지사, 정과정곡, 사적 전개, 의도하지 않은 이별, 왕에 대한 원망, 문학적 관습

1. 서론

고전시가 중에는 충신연주지사라 불리는 작품들이 있다. 충신연주지사를 언급할 때 주로 다루어지는 작품은 <정과정곡>과 몇몇 가사들이다. 작품이 많이 전하는 시조나 한시의 경우 충신연주지사라 불리지 않는다는 것이 특이하다 할 수 있다.¹⁾ 현재까지 충신연주지사라는 용어는 몇몇 작품만을 지칭하는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충신연주지사를 글자의 뜻으로만 이해하여 충성스런 신하가 왕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라고 본다면 고전시가 중 많은 작품이 충신연주지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군주제 국가에서 신하는 왕에게

1) 시조 중에는 연군시조로 다루어지는 작품들이 있다. 연군시조의 경우 충신연주지사와 표현에서는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지만 충신연주지사로 다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한시의 경우도 충신연주지사로 불리는 작품이 없는데, 충신연주지사라 불릴 만한 작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운채는 왕소군 고사 수용 한시들이 충신연주지사 편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다룬 바 있는데 이는 한시 중에서도 충신연주지사로 불릴 수 있는 작품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운채, 「왕소군 고사 수용 한시에 나타난 충신연주지사의 심리적 특성」, 『古詩歌研究』 5, 韓國古詩歌文學會, 1998, 539~572쪽.

충성을 다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신하라면 누구나 왕에게 충성했어야 하며, 그런 신하가 왕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지었다면 충신연주지사라 불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왕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임에도 어떤 작품은 충신연주지사라 불리고, 어떤 작품은 충신연주지사라 불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충신연주지사라는 표현이 글자의 뜻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충신연주지사라는 표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충신’이라는 단어이다. 특정 작품을 충신연주지사라 한다는 것은 그 작품을 지은 신하가 충신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그 신하를 제외하고 다른 신하들은 충성스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다른 신하들도 충성스러울 수 있고, 그런 신하들과 비교해서 충신이라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그 신하를 다른 신하들과 구별하여 충신이라 할 만한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 결국 충신이라는 것은 다른 신하들과 비교를 통해서 더 분명해지는 개념인 셈이다.²⁾

충신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충신연주지사라 불리는 작품은 신하를 충신으로 보는데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 내용을 통해서나 작품이 지어진 상황을 통해서 그 작품을 지은 신하가 충신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만 하는 신하가 왕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지었다고 해서 그 작품에 충신이라는 표현까지 붙여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만일 그 작품의 내용과 지어진 경위를 통해 신하가 충신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면 굳이 몇몇 작품에만 충신연주지사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충신연주지사를 글자의 뜻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일 것이다. 군주제 국가에서 신하는 모두 충신일 수 있으며, 충신이어야 한

2) 충신이라는 것이 반드시 비교를 통해서만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왕이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언제, 누가 보아도 충신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충신연주지사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충신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는 모두 충신연주지사여만 한다. 하지만 신하가 왕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 중에서 어떤 작품을 굳이 충신연주지사라고 했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따져 보아야만 한다. 이를 통해 충신연주지사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고전시가 작품 중에서 충신연주지사라는 표현은 몇몇 작품에만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 작품들은 기록으로 인해 충신연주지사라 불렸거나, 또는 충신연주지사라 불렸던 작품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충신연주지사로 불렸다. 이는 충신연주지사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충신연주지사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충신연주지사라는 표현이 글자의 뜻으로만 이해해도 되는 것이라면 고전시가 전반에 걸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충신연주지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본고는 충신연주지사라 기록된 <정과정곡>과 관련한 사실을 통해 충신연주지사의 개념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충신연주지사라는 용어를 현재처럼 몇몇 작품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지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전시가사에서 어떤 작품을 충신연주지사로 볼 수 있는지 다룸으로써 충신연주지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피고자 한다.

2. <정과정곡>과 충신연주지사의 개념

고전시가와 관련하여 충신연주지사란 표현이 등장한 것은 『조선왕조실록』 성종 때 기록에서이다. 이세좌는 왕에게 “眞勺은 비록 속된 말이나 忠臣이 임금을 그리는 가사이므로 사용해도 거리끼는 일이 없다.”³⁾라고

3) 『朝鮮王朝實錄』, 成宗 卷 219, '19年 8月'條, “眞勺 雖俚語, 乃忠臣戀主之詞, 用之不妨”.

아되고 있다. 여기서 <眞勺>은 <정과정곡>을 이르는 말인데, 충신연주지사란 표현은 <정과정곡>이 불린 사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과정곡>은 고려 의종(1127~1173) 때 정서가 지은 노래이다. 『고려사』 악지의 기록으로 작품이 지어진 동기를 알 수 있으며, 『악학궤범』에 실린 노랫말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고려사』 악지의 기록을 보면, 정서가 <정과정곡>을 지은 까닭은 의종이 조정의 議論으로 인해 정서를 고향 동래로 내려 보낸 지 오래되었음에도 소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종이 정서를 동래로 내려가게 한 이유와 내려간 지 오래 되어도 소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종은 정서를 보내면서 조정의 의론 때문이라고 하였다. 『고려사』 열전 대령후 왕경의 기록이나 정서의 아버지 정항의 기록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정서는 대령후 왕경과 친분이 있었지만 김준중과는 사이가 나빴다. 그런데 환관 정함은 의종에게 대령후 왕경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거짓으로 아뢰는 일이 있었다. 정서와 사이가 나빴던 김준중은 정서도 이 일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정함 등과 함께 헛소문을 꾸몄었다.⁴⁾ 결국 정서는 이 일로 인해 동래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이를 보면 정서는 잘못된 일이 없이 유배를 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종은 정서를 보내면서 오래지 않아 소환하겠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의종은 정서를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소환하지 않았다. 의종이 정서를 소환하지 않았던 이유를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의종이 조정의 의론을 탓하며 정서를 보내긴 했지만 정서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해서 소환하지 않았을 수 있다. 둘째는 의종은 정서를 부르려 했지만 조정에서 반대해서 소환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셋째는 의종이 정서를 유배 보냈다는 사실을 단순히 잊었을 수 있다.

의종 재위 중에 여러 차례 大赦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셋째 이유는 적

4) 『高麗史』, 卷29, 列傳一, 宗室 仁宗王子, “存中與太后妹壻內侍郎中鄭紘 及后弟承宣 任克正有隙 紘性輕薄有才藝 交結大寧侯 常與遊戲 存中誠等 構飛語以聞”.

절치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의종이 정서를 유배 보냈다는 것을 잊었더라도 정서는 대사령이 내렸을 때 풀려났어야 했기 때문이다. 정서가 대사령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지 않았다는 것은 정서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의종이 정서가 유배를 간 것을 잊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사령을 내렸음에도 정서가 제외된 것은 의종이 정서에게 죄가 있다고 믿었거나, 신하들이 반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의종이 정서에게 죄가 있다고 믿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의종이 정서를 유배 보낼 때 조정의 의론임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는 유배를 가는 신하에게 하는 정치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의종 자신은 정서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한다. 의종이 정서에게 죄가 있다고 믿었든, 안 믿었든 정서가 유배를 가게 된 데에는 다른 신하들 때문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대사령이 내렸을 때조차도 정서가 유배에서 풀려나지 못했던 것도 정서와 사이가 안 좋았던 신하들 때문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정서와 사이가 안 좋았던 김준중과 환관 정함과 같은 사람들이 의종과 정서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정과정곡>이 불린 경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왕과 신하 사이를 가로막는 다른 신하들의 무고 때문에 <정과정곡>이 지어지게 됐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과정곡>이 지어졌더라도 <정과정곡>을 충신연주지사라 할 수 있으려면 정서가 충신임이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고려사』의 기록만으로는 충신으로서 정서의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정서의 사람됨에 대해 ‘性輕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정서가 유배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에 <정과정곡>을 지은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이다.

정경주⁵⁾는 『고려사』 열전에 정서에 대하여 ‘性輕薄’이라고 기록된 것이 편찬자의 서술태도나 사료 취재의 문제점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性輕薄’이란 표현은 대령후 왕경을 무고하면서 정서를

5) 鄭景柱, 「鄭絺의 生涯와 忠臣戀主之詞로서의 <鄭瓜亭>」, 『釜山漢文學研究』 8, 釜山漢文學會, 1994, 247~256쪽.

함께 모함할 때 사용된 표현이어서 사실과 어긋난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임춘의 <追悼鄭學士>란 시의 ‘蕭灑出塵’이란 구절을 통해 정서의 사람됨이 ‘性輕薄’하지 않음을 추정하기도 하였다. 임춘이 비슷한 시대를 살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정서에 대해 ‘蕭灑出塵’이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정서가 어떤 인물인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性輕薄’이란 기록만으로 정서의 사람됨을 폄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록이 부족한 상황에서 ‘性輕薄’이란 표현만으로 정서가 충신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비록 정서의 언행이 신중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왕에 대한 충성심은 남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서와 사이가 나빴던 김준중이 『고려사』 열전 嬖幸傳에 소개된 점⁶⁾을 염두에 둔다면 김준중의 모함을 받았던 정서는 ‘性輕薄’하지만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즉 김준중이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이나 하고 왕이 좋아하는 것만을 하도록 부추기곤 했다면, 정서는 왕이 싫어할 수 있는 諫言을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했을 수 있다. ‘性輕薄’이란 표현은 정서의 사람됨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서가 충신이 아니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정과정곡>의 내용은 『악학궤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신연주지 사라 하였으므로 왕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지만 작품에서 보이는 양상은 그렇지만은 않다.

(前腔) 내님을 그리스와 우니다니

(中腔) 山楸동새 난 이슥흐요이다

6) 김준중은 『고려사』 열전 嬖幸傳에 소개되었다. 폐행전 서문에 보면 “자고로 소인들은 임금이 좋아하는 바에 영합하며 그것을 조장하였다. 혹은 아첨으로, 혹은 음악과 여색으로, 혹은 사냥으로, 혹은 백성에게 혹독하게 세금을 걷는 것으로, 혹은 궁전을 짓는 것으로, 혹은 기술로. 모두 임금이 좋아하는 바를 잘 맞추어 주는 가운데 추구하는 바가 있다. 고려는 건국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간사하고 아첨하는 폐행이 또한 많았다. 이제 옛 기록에 의거하여 폐행전을 짓는다(自古 小人伺人主之所好逢而長之 或以諛佞 或以聲色 或以鷹犬 或以聚斂 或以土木 或以技術 皆有以投其所好而求中之也 高麗有國既久 憚佞嬖幸之臣亦多 今據舊錄作嬖幸傳).”라고 하였다.

(後腔) 아니시며 거츠르신 들 아으
 (附葉) 殘月曉星이 아르시리이다
 (大葉) 녀시라도 님은 혼디 녀져라 아으
 (附葉) 베키더시니 뉘러시니잇가
 (二葉) 過도 허믈도 千萬 업소이다
 (三葉) 뭇히트 마러신더
 (四葉) 슬웃브더 아으
 (附葉)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
 (五葉) 아소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1~4행에서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구체적 대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5행 이후를 보면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런 처지에 놓인 것을 왕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 연주지사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자신을 잊었느냐는 힐난 투의 어조, 그 어느 것 하나에도 다소곳함이란 별로 찾을 수가 없”⁷⁾는 표현은 “임의 무심함에 대한 원망의 열거 및 반복”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과정곡>을 “유배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임금에 대해 원망하고 울분을 삭이며 부른 노래”⁹⁾라고까지 보기도 한다. 이를 보면 <정과정곡>은 왕에 대한 그리움뿐만 아니라 원망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노래이다.

<정과정곡>의 내용을 보면 정서에 대한 사람됨에 대해 ‘性輕薄’이라 한 것이 이해되기도 한다. 자신을 유배 보낸 왕에 대해 원망을 감추지 않고 표현한 것을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정서는 유배 중인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서의 입장에서 보면 뜻하지 않은 유배일 수 있고, 이유가 없는

7) 김쾌덕, 「<鄭瓜亭曲>의 문학사적 의의」, 『고려노래 속가의 사회배경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1, 205쪽.

8) 이형대, 「<怨歌>와 <鄭瓜亭曲>의 시적 인식과 정서」, 『漢城語文學』 18,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99, 116쪽.

9) 최현재, 「忠臣戀主之詞의 전통과 <萬憤歌>에 대한 새로운 이해」, 『韓國言語文學』 70, 한국언어문학회, 2009, 280~281쪽.

유배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안다면 자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노래한 것이다. 정서의 <정과정곡>은 납득할 수 없는 유배 생활을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심경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과정곡>이 불리게 된 경위과 내용만으로는 <정과정곡>을 충신연주지사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서를 충신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정과정곡>의 내용을 연주지사라 하기에 아쉬운 점이 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 <정과정곡>이 충신연주지사라고 기록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조선은 성리학을 국시로 내세웠던 나라이고, 그런 나라에서 신하가 왕에게 <정과정곡>을 충신연주지사라 아뢰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정서가 충신으로 평가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거나 <정과정곡>을 연주지사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면 충신연주지사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조선 성종 때라면 지금과 달리 정서에 대한 기록이 더 많이 존재했을 수 있다. 그래서 정서를 충신이라 했다는 것은 그럴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왕에게 정서를 충신이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서를 충신으로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정서를 충신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왕에게 충신이라 했을 수 없었을 것이며 정서가 충신임을 들어 <정과정곡>을 궁중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아뢰지도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조선은 역성혁명을 통해 등장했기 때문에 충과 효를 강조하던 나라였다. 그렇기 때문에 충신이 아닌 사람을 왕에게 충신이라 할 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서가 충신이라고 하더라도 <정과정곡>의 내용은 연주지사라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정과정곡>을 연주지사라 하였던 것은 <정과정곡>의 내용이 연주지사라 받아들여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정과정곡>에서 왕에 대한 원망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당시까지의 문학적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연주지사라 보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만약 <정과정곡>이 당시까지의 문학적 관습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면 <정과정

곡>을 왕에게 연주지사라 아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연주지사라고 해서 왕에 대한 그리움만을 표현해야 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충신연주지사는 충신이 왕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왕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것도 허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으로 볼 때 우리나라 최초의 충신연주지사라 할 수 있는 <정과정곡>과 관련된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충신연주지사는 글자의 뜻대로 ‘충신이 왕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로만 볼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충신연주지사라 불리려면 우선 충신연주지사의 작가는 충신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신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신하와 왕 사이를 가로막는 세력으로 인해 신하가 억울하게 왕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상황에 처해야 하며, 이 상황 속에서 작품이 지어져야 한다. 작품은 왕에 대한 변함없는 심경을 표현하되, 왕에 대한 원망의 표현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충신연주지사는 이런 조건에 부합할 때 충신연주지사라 불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충신연주지사의 확대

충신연주지사라 기록된 <정과정곡>을 통해 충신연주지사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충신연주지사와 관련하여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유배 중이라는 상황과 작품의 내용이다. 충신연주지사라고 불린 <정과정곡>이 유배 중에 지어진 작품이고, 현재 충신연주지사라 불리는 작품들이 유배 중에 지어진 작품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충신연주지사라 하였음에도 <정과정곡>의 내용이 왕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만 구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작품의 내용구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정과정곡>에는 왕을 탓하는 듯한 내용을 당시까지의 문학적 관습이라 보았다. 그렇다면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충신연주지사와 유배의 관계이다. 유배 중이라는 상황이 작가로 하여금 충신연주지사를 짓도록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왕과 가까운 거리에서 항상 왕을 모시던 신하가 왕과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충신연주지사를 짓도록 만든 것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유배를 가야만 충신연주지사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왕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유배를 가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방관으로 나가 있거나, 벼슬에서 물러나 향리로 돌아갔을 때도 왕을 그리워할 수 있다. 유배라는 상황으로 인해 왕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깊어질 수는 있어도 유배라는 상황에서만 충신연주지사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배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충신연주지사의 작가가 왜 유배를 갔느냐는 점이다. 충신연주지사의 작가가 왕에게 죄를 지어 유배를 갔다면 충신이라 부를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유배를 가서 지은 노래가 충신연주지사라 불린다는 것은 유배를 간 이유가 왕에게 죄를 지어서가 아님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서가 유배를 간 것은 폐행을 일삼던 김종중에게 참소를 당했기 때문이다. 정서가 충신일 수 있었던 것도 김준중과 같은 인물로 인해 죄 없이 유배를 갔기 때문이다. 김준중과 같은 인물이 없었다면 정서는 유배를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정과정곡>을 부를 일도 없었을 것이다. 즉 충신연주지사가 지어지게 된 것은 유배 중이라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올바르게 못한 세력이 왕과 신하 사이를 가로막았던 데에 있다.¹⁰⁾ 이 세력으로 인해 신하는 왕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10)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작품으로 김익의 시조 6수가 있다. 이 작품들은 김익이 유배 중에 지은 연군시조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충신연주지사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충신연주지사라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김익이 유배를 간 것은 영조가 인현왕후의 제삿날에 불공을 드리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즉 영조와 김익 사이를 가로막던 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유배를 갔다. 물론 김익이 유배를 간 이유가 잘못이라 할만 것은 아니고, 불충이라 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김익이 유배를 간 이유가 김익을 충신으로 불만한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지어진 작품을 충신연주지사라 부르는 것은 어렵다.

럼으로써 왕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노래를 짓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충신연주지사가 유배라는 상황보다 왕과 신하 사이를 방해하는 세력의 존재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이 있다. 두 작품은 정철이 고향인 담양 창평으로 내려가 있던 시절인 정해년(1587)과 무자년(1588) 사이에 지은 작품으로 알려졌다.¹¹⁾ 그런데 이때 정철이 창평으로 내려간 것은 유배를 받아 내려간 것은 아니다. 충신연주지사로 불리기 위해서 유배 중이라는 상황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면 이 두 작품은 유배 중에 지어진 것이 아니므로 충신연주지사라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두 작품은 충신연주지사로 불리고 있다. 이는 서포 김만중이 두 작품에 대해 언급한 것에 힘입은 바 크다.

김만중은 정철의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을 ‘我東之離騷’라 하여 굴원의 <이소>에 비한 바 있다. 김만중이 거론한 굴원의 <이소>는 한문학에서 충신연주지사의 효시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굴원이 <이소>를 지은 때는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따르면 上官大夫의 모함 때문에 楚懷王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때¹²⁾였다. 즉 굴원이 <이소>를 지었던 것은 유배를 갔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만중과 같은 문인이 『사기』를 안 읽었을 리 없으므로 굴원의 <이소>가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으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김만중이 정철의 작품을 ‘我東之離騷’라 한 것은 정철의 작품이 <이소>와 여러모로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이상원, 「죽하(竹下) 김익(金燾)의 단가 6수와 그의 시가 향유」, 『泮橋語文研究』 17, 泮橋語文學會, 2004, 34~40쪽.

11) 『松江別集』, 卷7, 附錄, 畸翁小錄, “歌詞前後美人曲 在此鄉時小作 不記某年似是丁亥戊子年間耳”.

12) 굴원이 <이소>를 지은 때가 이때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굴원은 경양왕 때 유배되어 강남에 처음으로 가게 되는데 <이소>에서 강남 지방을 언급하는 내용을 고려하면, ‘초 회왕 말년에서 경양왕 초년에 지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상관대부의 모함으로 초 회왕과 멀어졌을 때이다.

선정규, 『굴원평전 장강을 떠도는 영혼』, 신서원, 2000, 107쪽.

때문이다.

정철이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지었던 때는 1585년에 兩司의 論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인 창평으로 내려갔을 때였다. 정철이 벼슬에서 물러난 것은 동서 봉당의 대립으로 인한 결과이다. 그런데 그 당시 동서 봉당에 대해 “동인 서인으로서의 봉당형성은, 실은 외척적 존재인 심의겸의 정치참여에서 비롯된 척신적 요소의 척결에 대한可否에 두어진 것으로, 아직까지는 사림정치의 구현을 위한 정치이념이나 國政遂行방식, 정국운영론과 같은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고, 따라서 학과적 색채나 유학계보상의 여러 요소가 분명히 드러나지는 못하고 있었다.”¹³⁾라는 평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서 봉당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심의겸과 김효원의 대립에 대해서도 “양자의 불화갈등이 증폭되어 갔던 주요 요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끝없이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이 지닌 일말의 긍정적 측면을 용인하지 않는 일련의 맹목적 반대의 계속된 대립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¹⁴⁾라는 평가도 고려해야 한다.

즉 정철이 벼슬을 관둔 때는 심의겸이 파직당할 때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철에게 죄가 있어서라기보다 동인의 정치적 공세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어진 정철의 작품을 김만중은 굴원의 <이소>에 비교하고 있다. 이는 김만중이 정철의 작품이 지어진 창작 배경을 굴원의 <이소>와 다를 바 없으며, 그 내용까지도 비슷하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굴원이나 정철은 모두 뜻하지 않게 왕과 멀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왕에게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해 때문이었다.

이를 고려한다면 충신연주지사는 왕과 신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저

13) 鄭萬祚, 「朝鮮中期 儒學의 系譜와 朋黨政治의 展開 (I)」, 『朝鮮時代史學報』 17, 朝鮮時代史學會, 2001, 110쪽.

14) 金燾, 「宣祖代 沈義謙·金孝元의 갈등 요인 檢討」, 『歷史教育』 79, 역사교육연구회, 2001, 51쪽.

해하는 세력으로 인해 신하가 왕으로부터 떨어진 상황에서 지어진 작품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서의 경우처럼 최악의 경우에 유배를 가게 되지만, 정철의 경우처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벼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신하라면 왕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작품을 지을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충신연주지사와 관련하여 살펴볼 것으로 충신연주지사의 내용구성이다. 앞서 <정과정곡>에 왕을 그리워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왕에 대한 원망의 내용도 구성되었음을 보았다. 그리고 이를 당시까지의 문학적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는 것이라 추정하였다. 이 문학적 관습은 앞서 언급한 굴원의 <이소>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굴원의 <이소>는 중국에서 충신연주지사의 효시로 불리는 작품이며, “초왕에 대한 불만이 거듭 표현”¹⁵⁾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전국시대 인물인 굴원의 <이소>가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굴원의 <이소>가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있어서이다.

굴원에 대해서는 『사기』의 <굴원가생열전>을 통해 충신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고, 그가 남긴 작품을 통해서도 시인으로서의 능력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 作家들에게 屈原은 훌륭한 忠臣이요 뛰어난 詩人이라고 인식”¹⁶⁾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高麗末葉으로 내려와서는 文獻에 보다 구체적으로 作家 屈原과 楚辭에 대한 言及이 많아졌다”¹⁷⁾는 사실을 통해 우리나라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굴원의 <이소>가 <정과정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는 입증하기 어렵다. 하지만 굴원의 <이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과정곡>을 이해하는데 <이소>가 도움이 되었을 것만은 분명하다.

정서가 <정과정곡>에서 왕에 대한 원망을 드러냈음에도 조선의 신하는

15) 선정규, 앞의 책, 137쪽.

16) 范善均, 「韓國古典詩歌에 끼친 屈原의 影響」, 『中語中文學』 10, 韓國中語中文學會, 1988, 223쪽.

17) 范善均, 위의 논문, 220쪽.

왕에게 <정과정곡>을 충신연주지사라 하였다. 이는 왕에 대한 원망의 표현이 원망을 드러내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왕이나 신하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려나 조선에서 굴원은 충신과 시인으로서 이름이 높았었다. 이 사실은 사대부들이 굴원의 <이소>가 어떤 작품인지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고려시대의 <정과정곡>을 충신연주지사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굴원의 <이소>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다. <이소>는 <정과정곡>과 달리 장시여서 왕에 대한 불만이 왕과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부들은 굴원이 왕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대부들이 굴원의 <이소>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면 <정과정곡>에 드러난 왕에 대한 원망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정서가 유배를 간 이유가 김존중과 같은 인물의 참소 때문이었다는 점까지 알았다면 <정과정곡>을 충신연주지사라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굴원의 <이소>와 정서의 <정과정곡>에서 발견할 수 있는 왕에 대한 불만이나 원망은 왕에 대한 불충스러운 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소>에서 왕에 대한 불만이 “‘충군’의 역설적인 표현”¹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였던 것처럼 <정과정곡>도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즉 어떤 세력의 참소로 인해 왕과 떨어진 상황에서 왕을 걱정하거나 그리워하는 작품을 지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문학적 관습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학적 관습은 정서의 <정과정곡>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만분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유배가사의 효시로 불리는 조위(1454~1503)의 <만분가>는 충신연주지사로도 평가받는 작품이다.¹⁹⁾ 조위는 김종직의 처남이었는데, 김종직과

18) 선정규, 앞의 책, 137쪽.

19) <萬憤歌>에 대하여 류연석은 충신연주지사보다 ‘怨憤歌’라는 시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최현재는 ‘연군, 원망, 충간’의 내용을 잘 갖춘 충신연주지사라 하였다.

류연석, 「<萬憤歌>에 드러난 怨恨의 양상」, 『古詩歌研究』 30, 韓國古詩歌文學

사적인 원한이 있었던 유자광이 조위가 김종직의 문집을 만들면서 <조의 제문>을 수록한 것을 문체 삼았다. 이로 말미암아 조위는 죄 없이 유배를 가게 되었고 유배지에서 <만분가>를 지었다. <만분가>는 일찍부터 “後代의 작품 중에서 특히 「松江歌辭」에 끼친 影響이 지대”²⁰⁾하였다고 평가를 받을 만큼 정철의 작품과 표현에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만분가>는 정철의 두 작품과 달리 왕을 그리워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왕을 원망하는 내용도 찾아 볼 수 있다.

瘴海	陰雲의	白晝의	훗터디니
湖南	어늬고디	鬼魅의	淵藪런디
魍魎	魍魎이	쓸커디	저즌ㄴ의
白玉은	무스일로	靑蠅의	깃시되고
北風의	혼자셔셔	ㄴ업시	우느뜻을
하를ㄴ튼	우리님이	전혀아니	슬피시니
木蘭	秋菊에	香氣로운	타시런가
婕妤	昭君이	薄命흔	몸이런가

<만분가>의 82행에서 89행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북풍을 홀로 맞으며 울고 있는 자신을 임이 전혀 살피지 않는다고 탓하는 내용을 통해 작가의 왕에 대한 원망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와 같은 자신의 처지가 자신의 곧은 성정 때문인지, 아니면 왕소군처럼 박복한 운명 때문인지를 탓하고 있다. 이처럼 <만분가>에서도 왕에 대한 원망의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살펴본 정서의 <정과정곡>에서나 굴원의 <이소>에서도 발견된 내용이었다. <이소>나 <정과정곡>에서 왕에 대한 불만, 원망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었기 때문이었다. <만분가>에서도 왕에 대한 원망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었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만분가>는 “아모나 이 내 뜻/ 알 니 곳 이시면// 百歲交遊/ 萬世相感 즉 ㅎ

會, 2012, 197~201쪽.

최현재, 앞의 논문, 282~287쪽.

20) 李家源, 「〈萬憤歌〉研究」, 『東方學志』 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63, 161쪽.

리라”라고 끝을 맺는데, 이를 통해 왕에 대한 원망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 주는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충신연주지사와 관련하여 유배 중이라는 상황과 작품의 내용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충신연주지사와 유배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왕과 신하 사이를 방해하는 세력의 존재가 충신연주지사를 짓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왕과 신하 사이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인해 유배를 가거나, 벼슬에서 물러나거나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배 중이라는 상황은 충신연주지사의 전제조건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충신연주지사에서 왕에 대한 원망의 내용은 충신연주지사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왕을 그리워하면서도 원망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문학적 관습으로 볼 수 있다. 충신연주지사의 효시로 할 수 있는 중국 굴원의 <이소>에서도, 고려의 <정과정곡>에서도, 그리고 조선의 <만분가>에서도 발견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4. 충신연주지사의 사적 전개

현전하는 작품 중에서 충신연주지사라 평가받는 최초의 작품은 고려 의종 때 정서가 지은 <정과정곡>이다. 그런데 <정과정곡>보다 앞선 시기에 충신연주지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선 시기에도 왕과 신하의 사이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인해 왕과 떨어진 신하가 있었을 것이며, 그 상황 속에서 왕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작품을 지었던 신하가 있었을 것이다. 비록 이를 확인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기 쉽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므로 현전하는 기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충신연주지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김학성은 고려가요 중 노랫말이 전하지 않는 <冬栢木>이 <정과정곡>과 동일한 작자계층, 동일한 상황, 동일한 작자 의식을 갖고 있음을 지적

한 바²¹⁾ 있다. 채홍철이 지은 <동백목>의 노랫말은 비록 전해지지는 않지만 『고려사』 악지를 통해 지어진 동기는 확인할 수 있다. 충숙왕 때 채홍철은 죄를 지어 먼 섬으로 유배되었지만 덕릉[충선왕]을 사모하여 지은 이 노래를 왕이 듣고 소환하였다²²⁾고 한다. 충신연주지사로 평가받는 <정과정곡>과 비교된다는 점에서는 <동백목>도 충신연주지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동백목>을 충신연주지사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바로 채홍철이라는 인물 때문이다.

채홍철은 기록²³⁾에 의하면 탐관오리라 불리는 것이 마땅한 인물이어서 충신이라 볼 근거가 전혀 없다. 채홍철은 성품이 탐욕스러워서 사사로이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런 인물이 왕을 그리워하며 노래를 불렀다고 충신연주지사라고 부를 수는 없다. 게다가 채홍철은 자신을 유배 보낸 충숙왕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상왕인 충선왕을 그리워했다. 그 이유는 채홍철이 충숙왕보다는 충선왕의 측근²⁴⁾이었기 때문이다. 충선왕과 충숙왕은 부자지간이었는데 충선왕은 충숙왕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원 나라에 머물면서 고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한다면 채홍철은 상왕의 힘에 의지해서 유배로부터 벗어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동백목>은 유배지에서 왕을 그리워하며 지은 노래이기는 하지만 채홍철의 행적으로 인해 충신연주지사라고 불릴 수는 없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최현재²⁵⁾는 신라 진평왕(재위 579~632) 때 實兮가 지은 <실혜가>도 <동백목>이나 <정과정곡>과 여러 면에서 흡사함을 들어 충신연주

21) 金學成, 「高麗歌謠의 作者層과 受容者層」, 『韓國學報』 31, 一志社, 1983, 211~213쪽.

22) 『高麗史』, 卷72, 志 第25, 俗樂, 冬栢木, “忠肅王朝 蔡洪哲 以罪流遠島 思德陵 作此歌 王聞之 卽日召還”.

23) 『高麗史節要』, 卷24, 忠肅王 5年 5月, “又蔡洪哲性貪婪喜營私 多取民田產業鉅富”.

24) 『高麗史節要』, 卷24, 忠肅王 5年 5月, “上王嘗命蔡洪哲 巡訪五道酌定貢賦 …(중략)… 王雖不直其所爲以 有寵上王 且與權崔善 故不敢動搖”.

25) 최현재, 앞의 논문, 274~281쪽.

지사로 볼 수 있음을 밝히었다. 『삼국사기』 열전에 따르면, 실혜는 강직한 인물이었는데 珍提가 실혜를 시기하여 왕에게 여러 번 참소하여 귀양 벼슬[謫官]을 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사람들이 실혜에게 변명이라도 하라고 하자 변명의 말없이 가서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한다. 실혜가 지은 <실혜가>의 경우 노랫말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알기는 어렵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실혜가 자신의 신세를 屈原에 빗대었다는 점²⁶⁾이다. 최현재는 이 사실에 의거하여 실혜나 굴원이 강직한 성품을 지녔고, 둘 다 누명을 쓰고 임금에게 쫓겨났다는 점에서 <실혜가>가 굴원이 남긴 작품과 유사한 면모를 띠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⁷⁾

실혜가 굴원을 알고 있었는데 굴원의 대표작인 <이소>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실혜가 <이소>를 알았다면 굴원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서 자신의 뜻을 긴 노래[長歌]²⁸⁾를 지어 드러낼 때도 영향을 받았을 것임은 당연하다. <실혜가>도 <이소>처럼 왕 주위에 그런 신하들이 존재하는 것을 걱정하며 왕을 그리워했을 것이다. 만약 실혜가 <이소>를 몰랐다 하더라도 충신연주지사로서 <실혜가>의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실혜라는 인물이 충신으로 평가받을 만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충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도 왕이 처한 상황을 걱정했을 것이며, 타인을 탓하기보다 자신에게 문제를 찾으려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혜가 처한 상황은 충신연주지사가 불릴 만한 상황이었고, 실혜는 충신이라 볼 수 있는 인물이었다. 실혜는 자신의 처지를 굴원에 빗대었으며, 그 상황 속에서 노래를 지어 불렀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실혜가 부른 <실혜가>는 충신연주지사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충신연주지사가 왕에 대한 원망의 내용도 담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충신연주지사의 가능성은 커진다. <실혜가>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노

26) 『三國史記』, 卷48, 列傳 第8, 實兮, “昔屈原孤直爲楚擯黜 李斯盡忠爲秦極刑 故知 佞臣惑主 忠士被斥 古亦然也 何足悲乎 遂不言而往 作長歌見意”.

27) 최현재, 앞의 논문, 275쪽.

28) 굴원이 지은 <이소> 역시 373구 2,490자에 이르는 長詩인데 실혜도 긴 노래라는 지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래가 불린 경위, 노래를 부른 사람 등을 고려할 때 충신연주지사의 면모를 갖춘 노래였을 가능성이 있는 노래이다.

<실혜가>보다 앞서 지어진 작품이면서 충신연주지사로서의 면모를 갖춘 노래였을 가능성이 있는 작품으로 <勿稽子歌>가 있다. 『三國遺事』 避隱篇 勿稽子條에 실린 기록에서 언급된 <물계자가>도 노랫말은 전하지 않지만 노래가 지어진 내력은 확인할 수 있다. 물계자라는 인물은 신라 奈解王(재위 195~230) 때 인물로 두 번이나 전쟁에 참가해 공을 세웠다. 하지만 제대로 공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태자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다.²⁹⁾ 물계자가 태자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는 불분명한데, 태자가 공을 세운 물계자를 시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물계자가 처한 상황은 왕과 신하 사이에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셈이다.

물계자는 죄인이 된 것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거문고를 짚어지고 산에 들어가서, 대나무의 性癖을 슬퍼하며 그것에 뜻을 기대어 노래를 지고, 산골짜기 시냇물 소리를 본떠서 거문고를 타며 곡조를 지었다”³⁰⁾고 한다. 물계자가 스스로 산에 들어갔다고 해서 왕과 떨어진 이유를 물계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물계자가 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른 세력의 방해로 인해 물계자는 왕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물계자가 산에 들어가서 부른 노래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는 없지만 대나무의 性癖을 슬퍼하며 그것에 뜻을 기대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노래의 내용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대나무는 곧게 자랄 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푸르러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식물로 인식된다. 그런데 물계자는 대나무의 성벽을 슬퍼했다고 한다. 물계자가 슬퍼한 것은 대나무와 같은 성격을 가졌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자신이 그런 성격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했을 가능성이

29) 『삼국사기』 열전에는 王孫 榛音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30) 『三國遺事』, 避隱, 勿稽子, “乃被髮荷琴 入師毘山 悲竹樹之性癖 寄托作歌 擬溪澗之咽響 扣琴制曲”.

크다. 물계자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을 불충이라 했다. 대나무와 같았다면 전쟁에서 왕을 위해 목숨을 바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자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계자가>의 내용은 왕에 대한 죄송함이 주조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왕에 대한 죄송함은 충성심이 바탕이 되었을 때 생기는 마음이다. 충성심이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작품에서 왕과 떨어진 신하가 왕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지 않았을 가능성은 적다. 또한 왕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노래를 지어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물계자가>는 노랫말이 전하지 않지만 충신연주지사로 보아도 될 작품이다. 기록을 통해 볼 때 물계자는 충신이라 할 만한 인물이었다고, 물계자와 왕 사이를 방해하는 인물도 존재했다. 다만 물계자가 스스로 산으로 들어감으로써 왕에게서 멀어졌다는 점에서 충신연주지사가 지어졌던 상황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물계자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왕과 신하 사이를 방해하는 존재 때문이라는 점에서 다른 충신연주지사와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물계자가>가 지어진 경위와 물계자의 인물됨, 그리고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으로 보아 <물계자가>는 충신연주지사의 면모를 갖춘 노래였을 가능성이 있는 노래이다.

<실혜가>나 <물계자가>의 경우는 노랫말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충신연주지사로 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향가 <怨歌>의 경우는 노랫말이 전하기 때문에 충신연주지사로서의 가능성을 살피기 쉬운 작품이다. <원가>는 신라 孝成王 때 信忠이 부른 노래이다. 배경설화에 ‘木異’가 등장하기 때문에 주술적인 노래로 받아들여지거나, 신충이 ‘怨而作歌’하였다는 기록 때문에 원망의 노래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원가>는 내용을 보면 왕을 걱정하는 마음이 표현된 노래임을 알 수 있다. 신충의 왕에 대한 마음 때문에 <원가>를 연군가요³¹⁾로 보기도 한다. <원

31) 張德順, 『國文學通論』, 新丘文化社, 1960, 64쪽 표 참조.

尹榮玉, 「怨歌」, 『新羅詩歌의 研究』, 1993, 206쪽.

박인희, 「信忠掛冠과 怨歌 연구」, 『新羅文化』 28,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가>를 연군가요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원가>의 내용만으로도 충신연주지사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원가>를 충신연주지사로 보려면 신충이라는 사람의 인물됨, <원가>가 불린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신충은 ‘賢士’로 표현되었고, 왕을 위해서 머리를 깎고 절을 세운 후 왕의 복을 빌며 평생을 마쳤다고 한다. 이를 보면 신충을 충신으로 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신충이 <원가>를 불렀을 때 효성왕과 신충 사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하였는지가 문제이다. 효성왕은 잠저 시에 신충에게 잊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었다. 그런데 왕이 되고서 신충을 잊고 말았다. 이는 효성왕이 자신이 한 약속을 잊었을 수도 있지만 신충을 등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효성왕 즉위 초 효성왕의 외조부인 順元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과 왕비인 朴氏를 둘러싼 집단이 존재³²⁾했으며, 이들 사이에 대립과 견제가 있었으리라 보이기 때문이다.

신충은 두 정치 세력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다. 신충은 효성왕이 잠저 시 알게 된 인물로 성덕왕 때 당 나라로 사신을 갔던 金忠信³³⁾과 동일인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신충은 성덕왕 25년에 당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성덕왕 33년까지 8년 동안 머무르고 온 셈이 된다. 효성왕이 잠저 시에 신충에게 약속을 해 준 이유도 신충이 인물됨이 뛰어났고, 긴 시간 동안 당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특정한 정치세력과 관련이 적어서 일 것이다. 그런데 효성왕이 즉위하면서 신충을 기용한다면 두 정치 세력에게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셈이 된다.

효성왕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기존의 정치세력들이 자신들과 무관한 인물인 신충이 기용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효성왕은 자신이 약속했음에도 지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

2006, 319쪽.

32) 金壽泰, 「新羅 聖德王·孝成王代 金順元의 政治的 活動」, 『東亞研究』 3,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 1983, 220~223쪽.

33) 金壽泰, 위의 논문, 222쪽, 각주 35) 참조.

末松保和, 『新羅の政治と社會』 下, 吉川弘文館, 1995, 182~184쪽.

충은 무고나 참소로 인해 왕과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정치세력 사이의 대립으로 왕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된다. 이는 정철이 동서 대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벼슬을 관두었던 것과도 유사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신충이 <원가>를 부른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왕에 대한 걱정[忠]이며, 이 걱정은 왕에 대한 사랑의 표현”³⁴⁾이었다. 그러므로 <원가> 역시 충신연주지사로 볼 수 있는 노래이다.

조선 광해군 때 윤선도가 지은 연시조 <견회요>의 경우도 충신연주지사로 볼 수 있는 작품이다. <견회요>는 윤선도가 30살 때인 광해군 8년(1616) 병진년 12월에 올린 상소문 때문에 경원에 유배된 후 32살 때 지은 작품이다. 당시 유생이었던 윤선도는 이른바 ‘丙辰疏’라 불리는 상소문을 통해 당시 예조판서였던 이이첨이 과거에서 부정을 일삼고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이첨은 선조 때 후사 문제가 불거지자 광해군을 지지하였는데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권세를 장악한 인물이다.

윤선도의 상소가 있은 후 승정원,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은 광해군에게 사직의 글을 올리면서 이이첨을 옹호하였다. 이에 대해 광해군은 윤선도의 상소는 신경 쓰지 말고 일할 것을 당부한 바³⁵⁾ 있다. 광해군의 이와 같은 처사는 이이첨을 두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윤선도를 벌주기도 꺼려했음을 뜻하기도 한다. 하지만 윤선도는 결국 유배를 가게 되는데 이것은 당시 권세를 잡고 있던 이이첨 일파가 지속적으로 윤선도에게 벌주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왕과 신하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를 세력을 잡고 있던 일파에 의해 방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선도는 유배를 가서 <견회요>를 지었는데 특히 2수와 5수의 내용을 통해 충신연주지사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 박인희, 앞의 논문, 319쪽.

35) 광해군 8년 12월 22일에서 24일에 걸쳐 승정원, 양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 차례로 사직의 글을 올렸다.

내 일 망녕된 줄 내라흐야 모를손가
 이 므음 어리기도 님 위흔 타시로쇠
 아미 아미리 닐러도 님이 혜여 보쇼셔

어버이 그릴 줄을 처엄부터 아란마는
 님군 向흔 뜯도 하눌히 삼겨시니
 眞實로 님군을 니즈면 不孝인가 녀기화

2수의 종장은 남이 아무리 혈뜯더라도 왕께서 헤아려 달라는 하소연이다. 하지만 이 표현 속에는 왕이 헤아려 보았다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자신을 이처럼 유배를 보내었냐는 원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는 앞서 살핀 충신연주지사에 등장하는 왕에 대한 원망의 표현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5수의 종장에 가서는 왕을 잊는다면 불효와 같이 여기겠다고 하면서 왕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는 윤선도가 그만큼 왕을 그리워하며 걱정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윤선도가 지은 <견회요>는 시조로서 충신연주지사라 볼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한시의 경우 연군시로 평가받는 작품들이 존재한다. 특히 정철의 경우는 충신연주지사로 평가받는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짓기도 했지만, 연군시도 38편이나 썼다고 알려진다.³⁶⁾ 문제는 이들 작품들을 충신연주지사로 볼 수 있으려면 앞서 살펴보았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즉 왕과 신하 사이를 가로막는 세력으로 인해 정철이 왕과 멀어졌을 때 쓴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져야만 한다. 아쉬운 점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철의 연군시 중에서 작품이 지어진 이유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연군시라고밖에 부를 수 없다. 한시 중 연군시의 창작 경위가 왕과 신하 사이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인해 왕과 신하가 멀어졌을 때 지어진 것이 확인된다면 충신연주지사로 보아야 할 것

36) 兪睿根, 「松江의 戀君憂國 文學」, 『논문집』 12-1,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5, 12~13쪽.

이다.

노랫말이 전하지 않는 <물계자가>나 <실혜가>, 그리고 노랫말이 전하는 <원가>와 <견회요>를 충신연주지사로 볼 근거가 있음을 보았다. 그렇다면 고전시가사에서 충신연주지사는 신라 때부터 지어지기 시작해서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긴 전통을 갖는 노래가 된다. 앞서 언급되었던 작품들을 간단히 정리하여 다음과 같다.

제목	시대	지은이	인물됨	방해세력	결과
물계자가	신라 내해왕	물계자	충신	왕자, 다른 사람	입산
실혜가	신라 진평왕	실혜	충신	진제	謫官
원가	신라 효성왕	신충	현사	다른 정치세력	약속 불이행
정과정곡	고려 의종	정서	충신	김준중, 정함	유배
동백목	고려 충숙왕	채홍철	간신	×	유배
만분가	조선 연산군	조위	충신	유자광	유배
사미인곡 속미인곡	조선 선조	정철	충신	東人	낙향
견회요	조선 광해군	윤선도	충신	이이첨	유배

이외에도 <自悼詞>를 비롯한 몇몇 작품들이 충신연주지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보면 충신연주지사는 꾸준히 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서론에서도 간단히 거론한 것처럼 충신연주지사에 시조나 한시를 포함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본고에서 충신연주지사를 논하는데 기준이 되었던 <정과정곡>은 노래였다. 충신연주지사로 불리기 위한 조건으로 노래로 불려야만 한다면 시조는 논의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조는 가곡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반면 한시는 노래로 불리지는 않았지만 음송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시가라는 틀에서 보면 음송하는 것은 읽는 것과 구별되며 노래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시가

라는 틀에서 한시나 시조까지도 포함하여 충신연주지사를 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작품과 기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충신연주지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기란 어렵다. 그래서 충신연주지사라 불릴 수 있는 조건을 중심으로 충신연주지사라 불릴 수 있는 작품을 살펴보았다. 가사가 전하지는 않지만 신라 때 <물계자가>나 <실혜가>는 충신연주지사의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며, 향가 <원가>나 시조 <견회요>는 충신연주지사로 볼 수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정서의 <정과정곡>이 지어지기 전에도 충신연주지사라 할 작품이 존재했으며, 이런 전통 속에서 충신연주지사는 꾸준히 등장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5. 결론

고전시가 중에는 충신연주지사라 불리는 작품들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충신연주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루어진 적은 드물었다. 글자의 뜻대로 풀이해서 충신이 왕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작품을 지칭하거나, 충신연주지사라 불린 노래가 유배 중에 지어졌기 때문에 유배 중에 왕을 그리워하며 지은 작품을 지칭하였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 충신연주지사라 언급된 <정과정곡>을 중심으로 어떤 작품을 충신연주지사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충신연주지사라 불리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충신연주지사의 작가는 충신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둘째 왕과 신하 사이를 가로막는 세력으로 인해 신하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으로부터 멀어진 상황 속에서 작품이 지어져야 한다. 셋째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왕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충신연주지사는 이런 조건에 부합할 때 충신

연주지사로 불릴 수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 조건을 통해 충신연주지사에 포함될 수 있는 작품이 늘어날 수 있음도 보았다.

우선 충신연주지사를 유배 중에 지어진 작품만으로 한정해서 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유배라는 상황이 왕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도록 만들 가능성은 높지만 유배를 가지 않더라도 왕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충신연주지사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어떤 세력에 의해 왕으로부터 떨어진 상황에서 지어진 작품으로 넓혀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충신연주지사에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 왕을 원망하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문학적 관습으로서 작품을 지은 사람이나 향유하는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바였기 때문이다. 충신연주지사를 이렇게 보았을 때, <물계자가>, <실혜가>, <월가>, <견회요>가 충신연주지사로 볼 수 있음을 보았다. <물계자가>와 <실혜가>는 비록 가사가 전하지는 않지만 작품이 지어진 상황으로 볼 때 충신연주지사라 불릴 만한 작품이었다. <월가>와 <견회요>는 작품을 지은 인물과 작품의 내용에서 충신연주지사임이 드러나며, 작품을 지은 상황도 충신연주지사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작품이었다.

본고는 <정과정곡>을 단서로 충신연주지사가 무엇이며, 충신연주지사라 불릴 수 있는 작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범박하게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고전시가에서 충신연주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화 되었으리라 본다. 또한 이 논의를 통해 충신연주지사라는 표현을 몇몇 작품, 특정 장르에만 사용할 필요가 없음도 드러났다고 본다. 충신연주지사는 고전시가 전편을 대상으로 충신연주지사의 요건에 부합하는 작품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고전시가사에 충신연주지사에 대한 이해 분명해질 수 있으며, 전통이 길다는 것이 확인되리라 본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三國遺事』

『松江別集』

『朝鮮王朝實錄』(인터넷 sillok.history.go.kr)

金 燾, 「宣祖代 沈義謙·金孝元の 갈등 요인 檢討」, 『歷史教育』 79, 역사교육연구회, 2001, 51쪽.

金壽泰, 「新羅 聖德王·孝成王代 金順元の 政治的 活動」, 『東亞研究』 3,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 1983, 220~223쪽.

김쾌덕, 「〈鄭瓜亭曲〉의 문학사적 의의」, 『고려노래 속가의 사회배경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1, 205쪽.

金學成, 「高麗歌謠의 作者層과 受容者層」, 『韓國學報』 31, 一志社, 1983, 211~213쪽.

류연석, 「〈萬憤歌〉에 드러난 怨恨의 양상」, 『古詩歌研究』 30, 韓國古詩歌文學會, 2012, 197~201쪽.

范善均, 「韓國古典詩歌에 끼친 屈原의 影響」, 『中語中文學』 10, 韓國中語中文學會, 1988, 220; 223쪽.

박인희, 「信忠掛冠과 怨歌 연구」, 『新羅文化』 28,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2006, 319쪽.

선정규, 『굴원평전 장강을 떠도는 영혼』, 신서원, 2000, 107; 137쪽.

俞睿根, 「松江의 戀君憂國 文學」, 『논문집』 12-1,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5, 12~13쪽.

尹榮玉, 「怨歌」, 『新羅詩歌의 研究』, 1993, 206쪽.

李家源, 「〈萬憤歌〉 研究」, 『東方學志』, 연세대 국학연구원, 1963, 161쪽.

- 이상원, 「죽하(竹下) 김익(金熿)의 단가 6수와 그의 시가 향유」, 『泮橋語文研究』 17, 泮橋語文學會, 2004, 34~40쪽.
- 이형대, 「〈怨歌〉와 〈鄭瓜亭曲〉의 시적 인식과 정서」, 『漢城語文學』 18,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99, 116쪽.
- 張德順, 『國文學通論』, 新丘文化社, 1960, 64쪽.
- 鄭景柱, 「鄭敍의 生涯와 忠臣戀主之詞로서의 〈鄭瓜亭〉」, 『釜山漢文學研究』 8, 釜山漢文學會, 1994, 247~256쪽.
- 鄭萬祚, 「朝鮮中期 儒學의 系譜와 朋黨政治의 展開 (I)」, 『朝鮮時代史學報』 17, 朝鮮時代史學會, 2001, 110쪽.
- 鄭雲采, 「왕소군 고사 수용 한시에 나타난 충신연주지사의 심리적 특성」, 『古詩歌研究』 5, 韓國古詩歌文學會, 1998, 539~572쪽.
- 최현재, 「忠臣戀主之詞의 전통과 〈萬憤歌〉에 대한 새로운 이해」, 『韓國言語文學』 70, 한국언어문학회, 2009, 274~287쪽.
- 末松保和, 『新羅の政治と社會』 下, 吉川弘文館, 1995, 182~184쪽.

투고일 : 2014 1월 15일, 심사 : 2014년 1월 17일~2월 7일, 게재확정 : 2월 7일

<Abstract>

The Understanding of a Loyalist's Love-Song for his King and its Historical Development

Park, In-hee

In classical poetry, there are some works called as a loyalist's love-song for his king[忠臣戀主之詞].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of the concept of a loyalist's love-song for his king until now. A loyalist's love-song for his king literally has referred to some work with loyalist's longing for his king. Or, because a work called as a loyalist's love-song for his king was written in one's exile, it has referred to some work that one wrote as he missed his king in his exil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concept of a loyalist's love-song for his king, focused on Jeonggwajeonggok[鄭瓜亭曲] which has been stated as a loyalist's love-song for his king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The result indicates that a work called as a loyalist's love-song for his king must satisfy the following conditions. First, its writer should be appreciated as a loyalist. Second, the song should be written in the situation that the writer grows away from his king regardless of his will due to some influence blocking between his king and him, namely the king's subject. Third, in that situation, the writer should express his own feelings honestly with his longing for his king. A work called as a loyalist's love-song for his king should measure up to these conditions.

And the second and the third conditions increase the possibility that a

work is regarded as a loyalist's love-song for his king. Due to the second condition, it is not necessary that a loyalist's love-song for his king is defined as some work written in one's exile. It is enough that the song was written in some situation that the writer grew away from his king regardless of his will. The third condition allows a loyalist's love-song for his king to involve some expression of resentment over his king. The resentment reveals itself when the writer expresses his feelings in the situation that he is far away from his king. The expression of resentment over a king is comprehensible as a literary convention of those days.

In this way, it is possible that Mulgyejaga[勿稽子歌], Silhyega[實兮歌] and Wonga[怨歌] written in the period of Silla are regarded as loyalists' love-songs for their kings. Unfortunately, the lyrics of Mulgyejaga and Silhyega have been lost to history. However, the situation that they were written in considered, they deserve to be called as a loyalist's love-song for his king. Wonga should be called as a loyalist's love-song for his king because it measures up to the three conditions.

This paper examined what a loyalist's love-song for his king is, through the documents regarding Jeonggwajeonggok. In this process, it seems that the meaning of a loyalist's love-song for his king has taken concrete shape a little more. And, in this discussion, it seems that it is revealed that the expression of a loyalist's love-song for his king is not just for a few works or a specific genre.

Key words : Loyalist's Love-Song for his King, Jeonggwajeonggok, Historical Development, Unintended Parting, Resentment over the King, Literary Convention